

「국민의 司法參與 연구회」 출범

- 선진 법치국가 실현위한 제도화에 앞장설 터 -



이날 가진 학술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사법 참여 연구회」는 지난 3월 31일 토요일 오후 서울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70여명(회원 1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서울대 한인섭 교수를 회장으로, 경찰 종합학교 황운하 총무과장을 감사로 추대하는 한편 국민 참여 재판제도의 입법 및 실질화를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창립 발기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아직 제도화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국민이 입법 및 행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국민의 사법 참여도 이제是我们的 사법제도의 일부로 수용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충분히 성숙하지는 않더라도, 참여재판을 개시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음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에 따른 구체적 준비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의 법정

구조 및 재판용어를 바꾸며,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증거 법칙을 바꾸는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법조인만의 과제도 아니며, 국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우리들은 『선진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국민의 사법참여가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며, 사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에게 친근한 법의 지배를 이루기 위해서도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놓고, 또 국민참여재판의 가치를 놓고,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따져봐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사법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학자와 실무자들이 이 제도의 도입 방안을 연구해 왔고, 지난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사법참여」의 기본방안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구체안을 만들기도 했으며, 몇차례의 공청회, 모의재판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의 가치를 확인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김현석(부산지법 부장판사), 박광배(충북대 교수),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이석수(대검찰청 부장검사), 진진미(변호사) 등 6명이 주제 발표를 가진 가운데 2시간 동안 열띤 학술 토론회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은 「국민의 사법참여와 경찰수사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법정 증언자로서의 경찰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 및 수사상 적법절차 준수가 더욱 강조될 것이며, 경찰이 법정 증인으로 서는 상황이 보편화 된다면 종래 경찰과 검찰 역할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수 있으며, 경찰 책임수사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국민의 사법 참여 연구회」는 오는 6월 1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다음 학술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산하전체 전·의경들의 신상기록카드를 열람, 특기 및 취미란에 “음악”으로 표시돼 있는 대원들을 찾아내 필요인원의 배수를 우선 선발해 1.2차에 걸친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46명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생각해보니 일종의 대모험이었다.

교관단 구성에 있어서는 악대장으로 선발된 박이욱 선생이 음악이론, 연주법 등을 담당케 하고, 서울시경 악대장을 지내고 퇴임하신 서유택님을 초빙 음악실기과목 담당 교관으로 위촉하였으며, 경찰관 3명(경장:1, 순경:2)을 조교로 지정 발령함으로써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1984년 7월 31일 입교식을 갖고 3개월간의 합숙교육 대장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무던히도 무던했던 그 해 여름, 대원들의 수련열기가 뒤흔떡된 한 낮의 교육장은 흡사 용광로와 같이 뜨거웠고, 가르치거나 배우는 어느 쪽도 엄숙하리만큼 진지한 모습으로 수련에 몰두했다.

대부분이 악대경험 없는 단순히 취미를 가졌거나 소질이 있다는 것만으로 교육대상을 삼았기에 음악

A.B.C부터 주입시켜 주지 않으면 안될 수준이었으니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

1984년 12월 28일 드디어 제반준비를 끝내고 발대식 날이 돌아왔다. 장소는 용당동 소재 기동2중대 강당이었다.(당시 경찰국에 변변한 강당조차 없어 기동2중대 캠프 내에 3계 중대가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 겸 강당으로 사용하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어 이곳을 택함) 기동대 3개 중대, 본국 과장급, 각 경찰서장과 과장급 등이 참석했다.

식장 중앙에는 악대원 46명이 멋진 악대 유니폼을 차려입고 능률한 모습으로 도열, 첫선을 보였다.

식순에 따라 감격어린 경찰국장 축하사가 이어지는 순간 참석자 모두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으며, 말미에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우리 부산경찰이 드디어 해냈다.”라는 격려말씀에 힘찬 박수로 화답하며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로 발대기념 시범연주에 들어갔다.

악대장의 지휘봉이 힘차게 올라가고 파파르트가 울려 퍼지면서 행진곡, 민요, 베토벤 교향곡, 영화음악 등 사전에 배부된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주옥같은 노래가 50여분간 진행되는 동안 장내는 흥분과 탄성이 교차되는 감회 어린 분위기 속에 젖어들었다.

각고의 수련을 통해 갈고 닦은 자들의 화음과 조화, 그 격조 높은 예술적 기량이야말로 우리 부산경찰의 명예이며 보람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이렇듯 大役事の 뒤안길에는 직접 참여한 구성원들의 노력 외에도 많은 상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절절된 결실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당시 이영창 경찰국장(후일 11대 치안본부장 역임)의 악대창설에 대한 신념과 격려의 말씀은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돼주었고, 요원심사선발에서 대원후생 복지면에 이르기까지 주도면밀하게 심혈을 기울이신 차상권 경무과장님(후일 북부서장 역임, 작고)과 여영택 경무계장님(1998년 정년 퇴임후 작고)의 해박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노력은 바로 조직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다.

이제 現 김영철 악대장(경위, 창

설 당시 순경)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을 뿐 창설의 주역들은 지나간 시공 속에 다 현직을 떠나셨지만 경찰관악의 선율은 부산경찰과 더불어 호흡하며, 연연히 이어지리라 생각하니 창설 23주년을 맞는 오늘의 감회가 더욱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창설이후 23개 성상!

그 동안 800여회의 대내연주활동을 통해 확립적 규범과 속성으로 자칫 정서결핍에 젖기 쉬운 조직원들에게 정서함양을 통해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해 주는 값진 역할을 해주었고, 1,340여회에 달하는 대외연주 활동을 통해 황량한 항도 부산 곳곳을 누비며 관악의 진수를 만끽시켜 줌으로써 문화시민상을 일깨우고 아울러 민경친선의 전위적 역할을 한 업적은 경찰 그 어느 분야의 업적 못지않은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끊임없는 연마와 노력으로 보다 차원 높은 관악대로 발돋움 하여 부산경찰과 함께 400만 시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전·의경 집회시위 현장 체험기

대추리 너른 들판에 누워 밤하늘을 ... ②

——— 일경 강 민 구 (경기 120 천정대)

힘없고 순박한 시골 사람을 방패막이로 앞세워 이를 가는 시위대들을 막아야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눈을 질끈 감고 다다른 마을입구. 중대장님의 휴식조치가 소대로 전해졌다.

“1소대 휴식!”

아아,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가? 흠뻑에 탈씩 주저앉아 되도록 편히 쉬려는 지시에 따라 방석모와 방석보를 해제했다. 뜨거운 김이 뚝뚝 사이로 모락모락 새어나왔다. 육군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다가 쉬며 본 것 이후로 두 번째였다.

고단한 심신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는데 고참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다. 관등성명을 대며 고개를 획긋하니 군경보훈용 This 담배 한 개피를 주었다.

“민구야 두 모금 빨고 옆으로 돌려라.”

그때만 해도 담배보급조차 나오지 않던 신병 때였기에 담배 한 모금은 소중한 해소제였다.

- 〈중략〉 -

논길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무시무시한 시위대는 쫓겨나고도 좀처럼 해산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셋노랑에 떠올랐던 해가 붉게 타들어가며 떨어지는 모습은 부대 복귀에 대한 작은 기대를 안겨 주었다.

우리 중대는 시위대들의 군용지에 대한 무단 재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멧저 보이던 논두렁에 누웠 다. 연거푸 들숨을 토해내며 어둠이 드리워진 저녁하늘을 보았다. 하늘에 수 놓여 반짝이는 별이며 들새들의 비행모습은 힘겨웠던 5월 5일의 하루가 끝났음을 예고하는 듯 했다.

고참들이 몇 개피 남지 않은 담배를 소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 동안이라도 이렇게 큰 시위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허공으로 날아기는 담배연기에 실려 보냈다.

시위대는 경찰의 발품을 팔아 분풀이를 한 것 이외에도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파장조

과를 일으키는 소동을 올렸으리라 여기니 ‘오늘의 한국 시위문화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체적으로 시위에 있어 주도층은 노동자층이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노동여건이 좋지 않아 이러한 시위가 발생했을 때에 서민들은 언제나 시위대 편이었다. 두꺼운 철모에 봉과 방패를 든 도깨비 같은 경찰들이 무력을 사용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시위대가 심하게 무력을 통해 협상타결을 이루려 하는 방식이 경찰이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면서 예전의 서민입장은 시위대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시위대는 집회신고 후 한정된 시·공간을 이용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해야 할 것이다. 무기 없이 자유의 몸으로만 시위를 할 경우 서민들에게 훨씬 더 큰 신뢰를 얻을 것 이란 생각이다.

한참을 생각하는 데 기상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드디어 끝이 난 것일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발뚱 일어나 먼 지평선을 보았다. 무수한 점처럼 작아지는 시위대의 뒷모습이 시야에 컸다.

‘이렇게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나구나.’ 건강하게 집안에 성공하였기에 뿌듯함은 두 배였다.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나 고생했지만 일렬로 도로에 정렬해 있는 진압버스를 보니 귀환한 듯한 심정이 들었다.

질질 끌린 방패를 힘차게 들어 올리며 나도 모르게 기쁨의 합성을 질렀다. 그렇게 쏟아지는 고참들의 말씀에 짐짓 머쓱한 미소를 지었다. 완전 해제 후 진압버스 자리에 앉아 밖을 보니 비로소 내 자신이 살아있음이 느껴진다. 힘든 여정이었다.

집회 때의 장면들과 그리운 집, 가족의 얼굴들이 영사기에서 돌아가는 필름처럼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복귀하려 끔을 내는 진압버스만큼의 힘은 없지만 분명 경찰로써의, 짧은 피는 끓고 있었다.

「警友會」를 사칭한 각종 물품 판매자 신고 바랍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 경우회를 사칭, 태극기 등 각종 물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전국 경찰에 수차례 단속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역 경우회에 신고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미국보청기

전·현직 경찰관님께

15년 전통

미국보청기

최고급 디지털보청기를 40% 할인해 드립니다.

디지털 고막형

디지털 등속형

귀개형

코관형

부시 미국<전>대통령
보트 미국<전>대통령
레이건 미국<전>대통령

이 사용하는 보청기

- ▶ 장음이 잔뜩없고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 ▶ 15년 전통의 보청기 전문회사입니다.
- ▶ 아주작은 소리도 아주 잘 들립니다.
- ▶ A/S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 ▶ 10년 보증서 드림

서울 : 서울시 용구 남대문로3가 25번지 (구,서울시경 맞은편)
전화 : (02)752-2580, 752-2589 핸드폰 : 011-229-0055

인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22-1 푸른 B/D 2F
전화 : (032)469-0033 핸드폰 : 011-229-0055